

서울대-동경대 사무실 개소식

친애하는 Junichi Hamada 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1990년 일본 대학 최초로 동경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양교간 교류협력의 전환점이 될 사무실 교환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20세기 후반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동아시아는 이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중심권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에 인류의 미래가 있다」라는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성장과 변화의 역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조롭지 않은 잠재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 「극복해야 할 위기상황」도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시아가 세계 중심권으로 부상하고 번영과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의 틀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대학의 당연한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경제인들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대학사회만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장 바람직한 이웃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양교의, 더 나아가 양국의 공통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협력의 틀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평범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서울대와 동경대의 훌륭한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완벽한 연구자들이 모여 불완전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간 대학간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서로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 완벽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서로가 협력하여 양교간 완벽한 팀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교수 여러분,

대학은 고전의 풍부한 영감과 과학적 진리를 현대에 접목시키는 탁월한 두뇌가 모여 협동하는 곳입니다. 특히 국가 간 경제와 편견을 허물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최고 대학의 두뇌들이 협력하여 개별적 이익을 뛰어넘는 시대적 공통의 이익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인 미래가치를 추구하는데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